

LG화학, 석·박사에 MBA 채용 확대

LG생활건강도 2007년 100명 신규채용 ... 대기업 상반기 1만여명 채용

대기업들이 2007년 상반기에 1만여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나 채용규모를 늘린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2006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3월5일부터 대졸수준(3급) 신입사원 원서접수에 들어간다.

삼성은 상반기에 3500명을 뽑는 등 2007년 모두 8000여명의 3급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인데, 2004년 이후 4년째 국내 최대인 8000명 이상의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LG그룹은 전체 채용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LG전자에서 2007년 2000여명을, LG화학은 R&D 및 사업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중심으로 상반기 100명을 포함 400여명을 각각 채용할 예정이다.

LG화학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동을 통해 2005년부터 R&D 및 글로벌 사업 분야에서 석·박사 및 MBA 300여명의 인재 풀을 확보하고 50여명 이상을 채용했으며, 2007년에도 4월에 미주지역을 돌며 주요 MBA 졸업자와 대학 박사과정을 대상으로 인재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LG CNS는 IT 전문가, 시스템 엔지니어, 컨설턴트 등으로 육성할 인원을 500여명 뽑으며, LG생활건강은 7월경 마케팅세미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마케팅, 영업, R&D 분야를 중심으로 100여명을 신규 채용하고 경력사원은 연중 수시 채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LG생명과학이 영업부문과 R&D 분야에서 100여명을 채용하고, LG텔레콤이 2월말까지 상반기 영업직 인턴사원 4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07년 채용인원을 2006년 200여명에서 350여명으로 확대해 5월과 6월 사이에 대졸 신입사원 200여명을 뽑는다.

현대·기아자동차와 롯데그룹은 구체적인 채용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4월과 5월께 2006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인 대졸 신입사원 400여명씩을 선발할 방침이다.

르노삼성차는 상반기에 연구개발, 영업, 관리 분야의 경력 및 신입사원 250여명을 수시 채용할 계획이며, 2006년 상반기에 300명을 공채한 GM대우는 2/4분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기업들은 상반기에 각각 150여명, 250여명, 300여명을 공채할 예정 아래 3-4월 원서 접수를 받는다.

신세계는 5월 그룹 공채를 실시해 대졸 신입사원 150여명을 채용하고, 금호아시아나는 이미 상반기 공채를 통해 900여명을 뽑은 상태로 하반기에 4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26>